

Journal of Kijeon Cultural Studies, Vol. 43, No. 2, December 2022
<http://dx.doi.org/10.26426/KCS.2022.43.2.57>

부평 삼릉(三稜)과 신촌(新村)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끼친 영향

정유천*

국문 요약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이 조성되었고, 광복 이후 이 일대는 미군 캠프로 전용되면서 새로운 근대도시경관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근대도시경관에 생겨난 대표적인 유산이 부평 삼릉(三稜)과 신촌(新村)을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의 대중음악이다. 부평 삼릉과 신촌의 대중음악 공간은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사에서 국가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임에도 그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평 지역의 인천육군조병창이 광복 이후 미군 캠프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한국대중음악공간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유산 가치는 조병창 자체만이 아니라 광복 이후의 경관 변화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고 심오한 이해에 기초한 활용 방안 또한 모색될 수 있다.

주요어 : 부평 애스컴시티, 미8군쇼, 록앤롤, 핑키, 리듬앤블루스, 재즈

1. 머리말

일제강점기의 부평 조병창은 부평 지역에 남겨진 대표적 근대유산이다. 이러한 부평 조

* 인천밴드연합 회장,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대표이사(Chairman of the Incheon Band Association, CEO of Live Music Culture Development Association), ibc58@naver.com

병창 유산에 관해서, 기존 연구들은 부평 조병창 자체에만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평 조병창은 광복 이후 미군 캠프로 전용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의 조병창 일대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근대도시경관을 창출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평 삼릉(三陵)과 신촌(新村)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중음악공간이다. 부평 삼릉과 신촌의 대중음악 공간은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사에서 국가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임에도 제대로 된 본격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평 조병창과 광복 이후 미군 캠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평에 설치된 일본육군조병창이 한국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부평 조병창만이 아니라 조병창 일대의 근대유산이 광복 이후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근대유산의 심오한 이해와 활용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는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대중음악이란 무엇일까? 대중음악(大衆音樂, popular music)의 사전적 정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으로 대중의 기호나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음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까지도 음악에 담겨져 있다.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담긴 음악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전쟁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많은 저항 음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미국의 포크싱어 Bob Dylan의 ‘Blowin In The Wind’, CCR(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Fortunate Son’, ‘Have You Ever Seen The Rain’, ‘Who’ll Stop The Rain’, Peter Paul And Mary의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John Lennon의 ‘Imagine’, Don Mcleann의 ‘The Grave’ 등의 음악에 그러한 반전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16년 연극단체 예성좌가 단성사에 막을 올린 신파극으로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을 각색한 ‘카츄샤’에서 주연배우 고수철이 부른 ‘카츄샤 노래’와, 1923년 발표된 박채선. 이류색의 노래로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탕자자탄가(蕩子自歎歌)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일본 노래 번안곡이다.

‘희망가’는 일본 노래의 번안곡이지만 원곡은 미국의 작곡가 제레미 잉갈스가 작곡한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라는 찬송가이다. 1926년 발표된 윤심덕의 ‘사의 찬미’도 최초의 우리나라 대중가요로 거론 되지만, Iosif Ivanovici(이오시프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Donauwellen Walzer(Waves of the Danube Waltz)에 가사를 붙인 곡이다. 1929년 콜롬비아레코드사에서 발표한, 김서정이 작사·작곡하고 이정숙이 부른 ‘낙화유수’, 일명 ‘강남달’이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대중문화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면 해방이후에는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며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군 부대가 주둔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서구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문화가 대중음악이었다.

우리나라의 여러 미군 부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ASCOM 24(Army Service Command 24)가 주둔하였던 부평은 서구의 대중음악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당시 한국에 주둔하였던 미군 부대가 미8군 휘하의 부대였고, 미군 클럽에서 활동한 연주자와 가수를 미8군 클럽 출신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이후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일본식 대중음악에서 서구식 대중음악으로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부평 지역의 대중음악 공간에 접근한 것이다. 인천의 개항과 더불어 들어온 신문화가 부평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며 남긴 문화, 특히 광범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ASCOM 24(Army Service Command 24)와 더불어 발전했던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시작과 그 맥을 이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부평 뮤지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군 부대인 캠프마켓이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에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부평만의 특화된 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제시하고자 한다.

2. 개항기에 들어온 인천의 신문화

이 세상은 교통수단의 발달, 특히 선박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세계로 묶이기 시작했다. 먼 거리의 교통이 가능해지자 인류의 활동 영역은 넓어지면서 미지의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멀고 가까운 나라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나라의 문들이 열렸다. 그 문의 역할을 한 것이 바다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던 문물들이 개항과 함께 강제로 열린 부산, 원산, 인천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 서울과 인접한 인천의 문이 가장 활짝 열렸다. 자연히 인천은 낯선 이국 문물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접하는 창구가 되었다.

개항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한 인천은 유독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1899년 9월 18일 오전 9시 증기기관차 모갈(Mogul) 1호가 흰 연기를 내뿜었다. 서울 노랑진역에서 출발, 경인선의 시발이 되는 인천역을 향해 출발하는 한국 최초의 기차였다. ‘불’로 가는 화차라 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화륜거라 부르던 이 열차는 지금까지 120년 대한민국의 철도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최초의 고속도로가 뚫린 곳도 인천이요,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자유공원)이 설립된 곳도 인천이다. 클럽과 커피숍, 야구 및 축구 역시 인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는 한국 최초의 짜장면 및 대한민국 최초의 '스타 사이드'가 탄생한 곳도 인천이다. 한국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과 최초의 영화관인 애관극장이 세워졌고 팔미도 등대가 세워졌다. 또 인천의 조선기계에서 생산한 물품들로 만든 최초의 잠수함이 만들어진 곳도 인천이다.

열강들의 각축전 끝에 한양과 가까운 인천이 열리게 되고, 세계 각국의 배들이 인천항에 닿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인천엔 낯선 외국인 뿐 아니라 낯선 문물들이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인천의 인구는 급격히 불어났다. 이주해 온 일본인이나 각 나라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물자를 따라 몰려드는 내국인들이 엄청 났다.

그러나 인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낙후된 위생 환경과 많은 인구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식수원을 오염시켰다. 식수가 부족했고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다. 일본 지배하의 정부에서는 한강을 수원지로 하는 수도를 설계하였다. 이로써 인천에 한국 최초의 상수도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

노량진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인천까지 끌어오기 위해 만들었던 수도길은 인천항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수도국박물관 주위에는 이때 만들어지는 배수지가 아직 사용 중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최초의 목적도로였던 이 수도길은 인천과 김포 서울을 연결하는 직선도로로서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북한군이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미군들이 이 길을 따라 서울로 들어간 길이다.

3. 근현대사의 중심지, 부평(富平)

인천부에 속해 있던 부평 역시 그 역사적 환경을 비껴갈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라 부평 평야로 불리었던 부평 지역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관계로 인천과 더불어 개발이 시작되었다. 내륙의 평야 지대에 위치했던 부평은 인천 중심부와 달리 물류의 생산과 집하장으로서 기능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일본은 바다와 가까운 너른 평야 지대의 이점과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성주산, 원미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라는 이점을 살려 부평에 무기를 생산하는 인천육군조병창을 세웠다. 적으로 부터 공격에 방어가 수월하고 바다로 들여온 물품과 바다를 통해 나가야 할 물품들을 보관하고 운반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일제가 부평 일대에 설치한 인천육군조병창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최초의 중공업 단지였

다. 즉 중일전쟁 당시 이곳에서 생산한 무기를 일본군에게 전달하던 무기 공급처였던 셈이다. 이때 전쟁용 무기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조선기계(한국기계 전신)는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중공업 회사였다.

처음에는 히로나카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 생산하던 것을 1940년 일본기업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인수하여 사세를 확장했다. 현재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미쓰비시는 그때의 기술력을 발전시킨 덕분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제 말 부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군수 공장을 확대하면서 이곳은 일자리를 찾아 온 노무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미쓰비시 공업(三菱功業社)에서는 이 주변에 사택을 지어 제공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부평의 삼릉(행정동 부평2동)이다.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일본의 조병창(병기제조창)은 해방 후 1945년 9월16일 미군이 접수하지만 곧 철수하면서 한국군의 보급창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주한 미군의 군수를 담당하는 ASCOM이 재주둔하게 되며 미군의 물류 생산과 보급을 맡게 된다.

당시 주둔한 ASCOM은 캠프 그랜트(Camp Grant), 캠프 타일러(Camp Tyler), 캠프 헤이즈(Camp Hayes), 캠프 해리슨(Camp Harrison), 캠프 아담스(Camp Adams) 등으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7개의 캠프와 캠프 마켓(Camp Market)으로 구분하였다. 이곳에는 미군 형무소(728헌병부대)도 있었다. 특히 121부대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병원 부대였다.

이곳의 미군 기지는 당시 55보급창만 해도 한국인 종사원이 1,200여명 근무할 정도로 대규모였으며, 미군은 부평을 미국의 도시 중 하나라는 개념으로 '에스컴 시티'(ASCOM City)라고 칭하였다.

4.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부평의 삼릉(三稜)과 신촌(新村)

ASCOM 정문(Gate1)이 있었던 지역 주변에는 새로운 동네가 생긴다. 미군 보급창이 들어서자 부평이 비교적 풍요로운 곳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 한 위락 시설과 상가 등이 우후죽순 생기자 이 지역을 새로 생긴 동네라는 의미에서 신촌(행정동 부평3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신촌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모든 문화적 욕구까지 해결해야 했던 곳으로 어마어마한 물질적, 정신적 재화가 부평 지역에 쏟아 부어지게 된다. 그리고 신촌에 사는 사람들 중 미군 부대와 무관하게 생업을 꾸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림 2] 부평 신촌 지역의 클럽 분포도
(자료: 부평문화원)

대규모의 미군 부대와 미군들로 인하여 부평 신촌에는 미군 위락 시설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중 가장 인기 많았던 것은 미군을 상대로 하던 클럽들이었다. 고향을 떠나 먼 타향에 오게 된 미군들에게 고향에서 듣던 음악을 듣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이러한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클럽은, 영내(미8군 클럽)의 경우 NCO(하사관 클럽)와 EM(사병 클럽)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영외의 클럽은 백인 클럽과 흑인 클럽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그 기준이었다. 당시 부평에는 영내(미8군)클럽이 25여 개 내외가 있었다. 부평문화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외 클럽(특히 부평의 신촌 주변)의 경우 20여 개의 클럽들이 존재하였다고 한다(그림 1).



[그림 1] 마지막까지 남았던 '드림보트' 클럽(2019.11)
(자료: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1960년대 부평을 비롯한 의정부, 동두천, 문산, 송탄, 파주, 부산, 대구 등 한국에 주둔한 미8군 산하의 캠프를 비롯한 그 주변에는 클럽수가 264개나 있었는데, 이곳에서 벌어들인 돈이 연간 120만 달러였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

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연 100만 달러 내외였음을 상기해보면 ‘미8군 쇼’에서 활동하던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미8군 클럽에서 연주를 하려면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클래스(등급)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 클래스에 따라 페이(공연료)가 달랐다. 보통 더블A나 A, B, C를 받아야 했고 D를 받으면 ‘드랍(Drop)’이라고 하여 미8군무대에 설수 없었다. 그러니 당시 미8군 무대에 서는 것은 실력이 곧 돈이었으며 미8군 출신 뮤지션들은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8군무대에서 활약한 김시스터즈, 김보이즈, 패티김, 현미, 이금희, 서수남, 코리안 키튼즈의 윤복희, 윤향기, 한명숙, 임희숙, 신중현, 펄시스터즈, 유주용, 최희준, 손석우, 이봉조, 길옥윤, 김희갑, 사랑과 평화, 김홍탁, 김인배, 이인성, 박춘석, 김대환, 최선배 등은 지금까지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수와 연주인 작곡가들이다.

미8군쇼와 미군 클럽은 당시 가수와 연주인들이 선망하는 최상의 무대였으며 신촌은 그 중심에 있었다 할 수 있다. 당시 신촌에는 그린도어, 화이트 로즈, 드림보트, 세븐클럽 등 20여 개 넘는 클럽이 있었으며 삼릉에서는 유니버설클럽이 유명했었다(그림 2).

5. 음악인들의 동네, 부평의 삼릉(三菱)

부평 토박이들은 아직도 부평2동을 삼릉(三菱)이라고 부른다. 삼릉을 일본어로 표기하면 미쓰비시가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 사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을 JV(Japan Village)라고 불리었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미군부대 ASCOM이 인천육군조병창 자리에 들어서며 삼릉은 전혀 다른 동네로 바뀌게 된다.

ASCOM이 주둔하며 많은 위락시설들이 부평에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특히 클럽들은 미군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당시 클럽들은 음악을 틀어주는 클럽뿐만이 아니라 연주인들이 직접 연주하는 하는 클럽들도 꽤 있었다. 그러다보니 당시 연주할 곳이 없었던 연주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클럽이 많은 부평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든 미8군 클럽 연주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출·퇴근 문제였다. 당시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에 매일 연주할 악기를 지참하고 미군 부대 클럽을 출·퇴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보안상의 문제로 한국인의 미군 부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특정한 장소를 픽업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 연주인들이 모이면 직접 출·퇴근을 시켜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픽업 장소가 지금 부평 동수역 3번 출구 부근이며 보통 하루에 15개



[그림 3] 동수역 부근의 픽업장소 안내표지판(2019)

(자료: 조성정 그림, 액세스시티뮤직아트페어)

내외 악단이 출발하였으며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그림 3). 처음에는 부평 삼릉리 쪽에 있었는데 이후 이곳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다.

픽업장소에서 ASCOM뿐 아니라 수인역, 월미도, 송도 미사일 부대 문학, 군포 미사일 부대 등 인근 미군 부대 클럽 여러 곳에 밴드를 보내다보니 미8군 클럽에서 연주하는 뮤지션들은 당연히 삼릉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당시 미군 클럽에서 연주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월 6~7만 원 정도의 페이(공연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5급 공무원의 월급이 3만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군 클럽에서 연주하는 일은 수입이 꽤 괜찮은 일자리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음악동네가 삼릉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삼릉에 거주하며 활동했던 밴드는 주로 스윙재즈를 연주하는 밴드로 대부분 5~8인 조로 구성된 캄보밴드나 풀밴드 형태였다. 삼릉에 대표적인 밴드로는 트럼펫을 연주하는 유선준이 이끌던 Tophat, 김진해가 이끌던 Stardust, 유수봉이 이끌던 Happy time, 그리고 레인보우, 스타라이크, 메트로폴리탄, 차영수가 이끌던 파이오니아 등의 밴드와 치안국 악대(경찰악대) 고만석 단장이 이끌던 단체, 그 단체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이경천, 테너 색소폰 김이제, 앨토 색소폰 송봉익, 트럼본 유창근, 테너 색소폰 박준식, 색소폰 황준근, 드럼 이근수, 드럼과 베이스 연주자이며 인천 그린실버악단장을 역임한 한광옥, 드러머 조상국, 서울휘밀리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재덕, 베이스스트 김재경, 기타리스트 장이순, 드러머 홍종익, 트럼펫터 이인배, 데블스 멤버였던 기타리스트 김명길, 베이스스트 최완식,

드러머 조상국 등이 부평 삼릉 출신이다. 대한민국 1세대 드러머이며 많은 제자를 양성한 안명훈, 그 자제이며 한국 레전드 드러머로 인정받고 있는 안기승도 8살 때부터 삼릉에 거주하며 애스컴에서 최연소 드러머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키보디스트로 활동하는 김청산은 아이들 12명으로 구성된 밴드인 타이니다츠 멤버로 미8군 클럽에서 공연하였다. 지금도 삼릉에는 가수 배호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드러머 박현호 등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에서 크고 작은 악단의 마스터를 했던 연주인들이 대부분 삼릉 출신이다. 1950~70년대 삼릉이라는 작은 동네에는 한집 걸러 연주인들이 살았다고 할 수 있으며, 미8군 클럽 오디션을 보기 위해 연습하는 음악 소리는 그냥 동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그러한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간 다툼 또한 없었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 ASCOM 미군 부대가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동네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지만 지금도 이 동네 출신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한다.

이후에도 삼릉에서는 많은 뮤지션들이 배출 되었다. 기타리스트 양광철, 기타리스트 김일식, 기타리스트 김철석, 기타리스트 정원택, 드러머 구칠성, 드러머 조우영, 베이스리스트 한수창, 삼릉에 있던 유니버설클럽에서 오랜 기간 밴드 마스터를 했던 색소폰의 강오식, 기타리스트 조광진, 드러머 유진선, 정유천블루스밴드의 정유천, 인천 최초의 여성 드러머(레이디버즈 멤버) 김삼순, 드러머 김진호 등 많은 연주인들이 삼릉과 주변 동네에 살거나 이곳을 거쳐 간 연주인으로 지금도 대부분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6. 서구식 대중음악의 전파 거점, 부평

개항과 더불어 유입된 문물은 기계 및 문명의 발달 뿐 아니라 전통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던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연극이며 영화가 도입되었고, 오음계로 구성되었던 우리의 민요 및 농요 중심의 가락 대신 일본의 대중가요였던 엔카(演歌えんか, 艶歌)의 영향으로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대중가요로 자리를 잡았다. 구미(歐美) 춤곡의 한 장르였던 폭스트롯에서 시작된 이 장르의 음악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음반 산업과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 급속히 번져나가며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주류가 된다.

하지만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에 의해 새로운 장르의 대중음악들이 들어온다. 기존의 5음계로 만들어진 트롯하고는 전혀 다른 8음계의 음악으로 1961년 한명숙의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가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일반인들은 물론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까지 노란셔츠를 입고 운전하는가 하면, 같은 해 최희준은 ‘내 사랑 주리안’과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로 인기를 누렸고 1963년에는 현미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밤안개'를 불러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들은 모두 미8군쇼무대 출신으로 미8군무대에서 부르던 서구식 스타일의 음악들이었다. 이러한 서구식 음악의 유입 창구가 바로 부평에 있던 ASCOM이었다. 부평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ASCOM은 부평 뿐 아니라 전체 주한미군의 물자 및 인력을 담당하던 부대였다. 팝(Pop), 재즈(Jazz)와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Rock'N Roll과 Funky, Country Music, Rhythm and blues(R&B) 등의 음악이 ASCOM을 통해 들어왔고 한국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며 서구식 음악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지역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구창모(송골매 출신), 최성수, 유심초, 백영규, 이승재와 더불어 코요테에서 활동하는 신지, 박기영, 주다인(주주클럽), 비와이 등 유명가수의 배출로 이어진다. 더구나 삼익악기, 영창악기, 콜트 기타 등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기 공장이 유독 부평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단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현대 대중음악사에 있어서 부평 지역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간과할 수 없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 이제 부평은 그들이 남겨놓은 문화적 유산을 발굴 계승하여 대중 문화 예술의 체계를 세워야 할 시점이다.

7. 맺음말

문화의 향유는 1차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상태, 즉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의 상처를 벗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를 지나 올림픽을 유치한 1980년대 들어서 '문화'라는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문화적 향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라 하겠다. 이 시기에는 각 지자체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문화라는 단어가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문화 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정부 및 지자체들 역시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관(官) 중심의 축제들을 유치하고 있는 추세다.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역의 문화 축제나 문화 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요즘은 문화 축제나 문화 시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축제를 모방하거나, 실적 위주의 관

주도적인 형태로 보급되어 천편일률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변별력 없는 지역 축제야말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그나마 문화라는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역민들에게 식상한 인상을 주어 축제 문화를 외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이 지역 축제의 양적 성장 시기였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지역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역 문화의 질적인 전화와 구조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문화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제 부평의 근·현대사를 통해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부평 고유의 문화 인프라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부평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문화 인프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고향이자 뿌리라 할 수 있는 부평, 더 늦기 전에 이 지역 원로 음악인들을 찾아내어 부평의 대중음악사를 정리해야 한다. 이들 산 증인들은 문화 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간 대중음악의 원조도시인 부평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K-POP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가 살아있는 명실상부한 음악도시, 부평을 부활하는 일에 뜻있는 부평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깊이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ASCOM 내에 있던 마지막 기지인 캠프마켓도 완전히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 후의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100여 년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ASCOM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화적 자산이다.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근대적 군사 도시로서의 고유한 모습과 우리나라 서구식 대중음악의 발원지로서의 명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립한국대중음악자료원(가칭)을 유지하고 전근대 군사 박물관 등으로 활용한다면 부평 문화의 한 축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교육차원에서는 공립으로는 전국 최초인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를 캠프마켓내 부지로 이전하고 인천예술대학교(가칭)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Central Park나 영국의 Hyde Park처럼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세계적인 유명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음악도시는 곧 부평의 미래비전이다.

역사란 밝은 면만 찾아서 흐르는 물결이 아니다. 어둠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세계적 명승지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이제는 역사의 물결이 흘러온

자취를 바로 바라보고 후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 이 역사의 흐름에 동승한 현재 우리들의 책임이 되었다. 역사는 변한다. 인천과 서울의 길목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던 시대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보급했던 부평의 역사적 지리적 의의를 되살려 우리나라 음악도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K-POP의 뿌리가 되었던 곳, 불과 50년 전만해도 전국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던 음악도시 부평, 찬란했던 음악도시 부평의 그 영화를 되찾고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으로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음악도시 부평 만들기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일과 부평의 미래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적절한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찬, 2015, 한국대중음악사 산책, 알마출판사.
- 박성식, 2010, 한국전쟁과 대중가요-기록과 증언, 책이 있는 풍경
-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의 역사, 부평문화원.
- 이장열, 2020, “한국 대중음악 중심 장소로서 부평연구,” 기전문화연구 41(2), 135-172.
- 이준희, 2008, “일제시대 인천지역의 대중음악적 위상,” 인천학연구 9, 209-244.
- 전종한, 2019, “조선후기 부평도호부 읍치경관의 복원: 역사도시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 관점에서,” 기전문화연구 40(2), 71-96.
- 정유천, 2013,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보고서.

교신 : 정유천,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6 지하1층, 인천밴드연합/(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전자메일: ibc58@naver.com 전화: 032-518-1245

Correspondence : Jeong, Yoo Chun, Incheon Band Association/Live Music Culture Development
Association, B1, 6 Sintri-ro 6beon-gil, Bupyeong-gu, Incheon, 21354, Republic of Korea
e-mail: ibc58@naver.com, phone: +82-32-518-1245

투고일 2022. 12. 13.

수정일 2022. 12. 25.

채택일 2022. 12. 26.

[Abstract]

Influence of Bupyeong Samneung(三陵) and Sinchon(新村) on the Korean Popular Music History

Jeong, Yoo Chun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the Incheon Army Arsenal was created in the Bupyeong area, and since Korea's independence, this area was converted into a US military camp, forming a new modern urban landscape. The representative legacy created in this new modern urban landscape is Korean popular music that developed around the Samneung[三陵] and Sinchon[新村] in Bupyeong area. Although the popular music spaces of Bupyeong Samneung and Sinchon have a special and national meaning in the history of popular music in Korea, no full-sca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popular music space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Incheon Army Arsenal in the Bupyeong area into the US military camp since independence. The heritage value of the Incheon Army Arsenal can only be revealed when we look diachronically not only at the arsenal itself but also at the post-liberation landscape changes, and a plan to utilize it based on profound understanding can be sought.

Key Words : Bupyeong ASCOM City, The American 8th Army show, Rock'N Roll, Funky. Rhythm and Blues(R&B), Jazz